

향 장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2020 F/W 뷰티 트렌드

최첨단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

내 피부를 위한 최고의 쿠션을 찾아라

SEPTEMBER 2020 VOL.623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23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02 NEWS-ITEM 가을을 위한 스킨케어 | 26 PRODUCT 아모레퍼시픽 | 44 PERFUME 스타일별 추천 향수 |
| 04 NEWS-PLACE 아이오페 피부 맞춤 연구소 | 28 PRODUCT 아이오페 | 46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생생 후기 |
| 06 NEWS-TREND F/W 메이크업 트렌드 | 30 PRODUCT 내 피부 최고의 쿠션을 찾아라 | 48 ICON 재식하는 사람들 |
| 10 MAKEUP 번트 컬러 메이크업 | 36 MAKEUP PLAY 아이라인의 변신 | 52 PLACE 건축가가 지은 펜션 |
| 16 SPECIAL 2020 안티에이징 키워드 | 40 ISSUE 여름 흔적 지우기 | 54 ESSAY 정현주 작가의 아름다운 에세이 |
| 24 PRODUCT 설화수 | 42 BODY 부기 빼는 마사지 팁 | 56 EDITOR'S PICK 9월의 강추템 |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 통권 623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노연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앰솔루티™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을 완성하다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AMORE PACIFIC

탄력을 관리하라

무심코 찍힌 사진 속 얼굴이 넓테데하고 생기 없어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부 탄력 저하. 설화수 자음생에센스와 자음생크림 퍼펙팅 2종으로 인삼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해보자.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60ml, 25만원. 진세노믹스™와 8년근 황기 추출물이 피부 재생력을 키워 속부터 촉촉하게 자오르는 탄력을 선사하고 노화의 흔적을 개선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50ml, 20만원.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진세노믹스™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완성하는 대표 안티에이징 에센스.

매일매일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자국이 쌓인다. 자외선, 계절의 변화 등 외부환경은 물론, 스트레스나 피로, 식습관, 외부 환경 등 행동적인 요인으로 피부에 미세한 자극과 염증이 생기며 피부의 근본적인 탄력이 약해진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는 탄력이 필요한 곳을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외부자극에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는 설화수 대표 탄력에센스.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인삼 속 사포닌 성분을 6천 배 농축한 활성 뷰티 사포닌인 진세노믹스™ 성분을 미세 캡슐에 담아 강력한 인삼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실제로 자음생에센스를 8주간 사용한 후 피부치밀도 105%, 탄력 103%, 주름개선 17%의 효과를 보였다. 올 9월 새롭게 출시된 자음생크림퍼펙팅은 더 특별하다. 오랫동안

No.1 안티에이징크림으로 사랑을 받았던 자음생 크림에 항산화 효능을 자랑하는 8년근 황기 추출물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돌아왔기 때문. 5060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방관 전용상품으로 출시되었다. 두 제품의 시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도 훌륭하지만, 자음생에센스와 자음생크림퍼펙팅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 설화수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텍스처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자음생에센스는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질감으로 바르자마자 기분 좋게 흡수되며, 자음생크림 퍼펙팅은 쫀득한 제형으로 보습과 윤기 증진 효과를 제공한다. 아침저녁으로 미간에서 눈꼬리 쪽으로, 인중에서 광대뼈 쪽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쇄골에서 턱 밑까지 끌어올리듯 바르면 끝. 피부 속부터 차곡차곡 탄력을 다져주는 이 놀라운 제품들로 새로운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해보자. **LD**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CHOI MIN YOUNG



2020 아이오페 스킨위크에 초대합니다

디지털 스킨위크 '피부맞춤 연구소: 아이오페 양장점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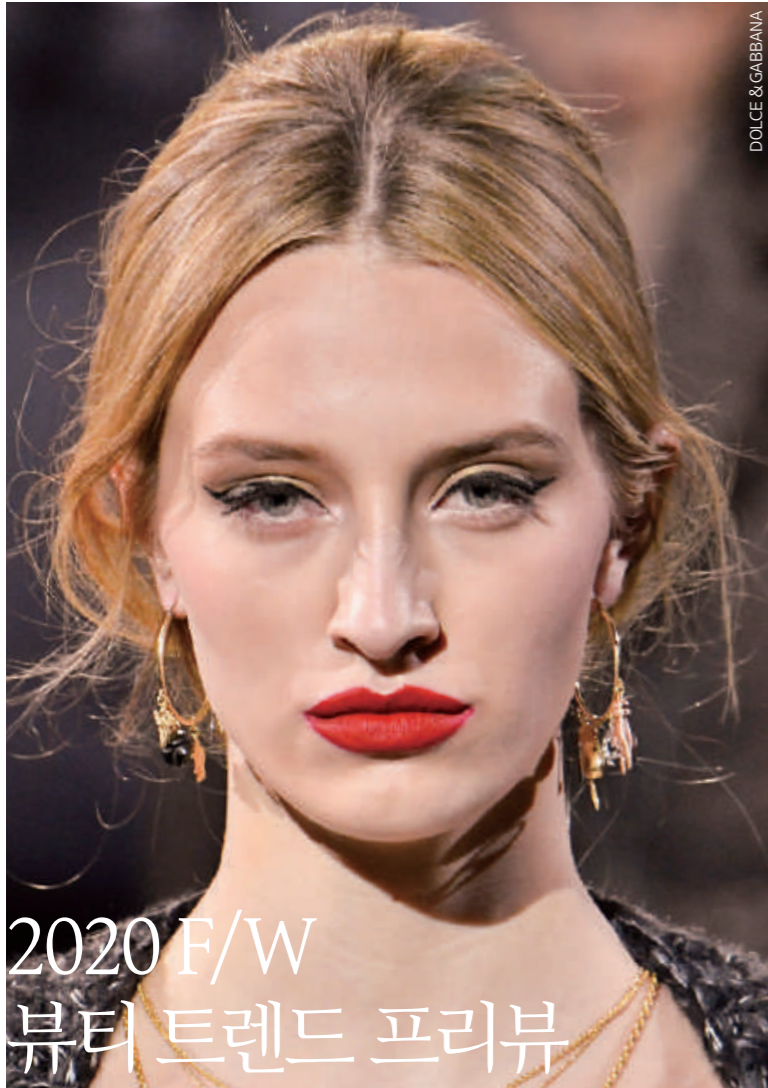
올해 6월 리뉴얼 오픈한 아이오페 랩에서 2020 스킨 위크 '아이오페 피부 맞춤 연구소: 아이오페 양장점'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4년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6천 명 가까운 여성의 피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온 아이오페 랩에서는 꼼꼼한 상담을 거쳐 개인의 피부에 맞춰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EDITOR AHN SAE ROM

네번째 진행되는 이번 2020 스킨 위크는 보다 특별하고 섬세하게 기획되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카운셀링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스킨

위크로 진행되는 것. 아이오페 피부 맞춤 연구소의 첫 번째 손님 한 소희. 그녀는 스킨위크 체험하며 그녀의 스킨 푸처 시크릿을 감상하며 언택트 시대의 스킨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만끽했다.

2020 스킨 위크 '아이오페 피부 맞춤 연구소: 아이오페 양장점'에서는 오프라인 행사 못지 않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개인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피부 맞춤 솔루션 셀프 문진, 아이오페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 블루 박스를 받기 위한 인증 이벤트, 스킨 테일러의 터치 솔루션, 인플루언서와 아이오페 스킨 테일러가 공개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오프라인 매장 방문 예약 등 다양한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 스킨케어의 미래이자 언택트 시대의 선봉에서 있는 디지털 스킨위크에 방문하여 나만의 피부 미래 솔루션을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 **ID**



2020 F/W 뷰티 트렌드 프리뷰

올 가을·겨울에는 한층 더 과감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시도해도 좋을 듯하다.

선명한 레드 립부터 눈꼬리를 길게 뺀 블랙 아이라인, 뉴트로 열풍의 중심에 있는 레트로 빈트 룩, 세미매트 스킨까지.

크레이프톤의 레딕 립 치명적인 컬러 레드. 그중에서도 맑고 보송한 레드 립이 올 가을·겨울 사랑받을 전망이다. 클래식한 레드가 주를 이룬 에르메스와 질 샌더, 고풍적인 와인 컬러가 감도는 지방시의 룩까지 많은 디자이너가 모던한 블랙 앤 화이트 혹은 모노톤 의상에 매트한 레드 립을 매치했다. 립 라커 역시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중.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스는 부드러운 텍스처로 발림성을 높이고, 밀착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입술에 발랐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발색된다. 가볍게 스머징 되는 부드러운 매트 제형으로 돌체 앤 가버나의 런웨이 모델들처럼 입술을 도톰하게 그리는 오버 립 메이크업 역시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다.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337호 로즈 페퍼, 3.5g, 3만 5천원.



헤라 아이라이너 펜슬. 1호 블랙, 2만 5천원.

2020년 가을·겨울 뷰티 트렌드의 핵심 4가지를 꼽아봤다.

블랙 아이라인의 귀환

화장대 서랍 안에 고이 모셔둔 아이라이너를 모두 꺼낼 때다. 1970~80년대 무드를 담아 크레용으로 쓱쓱 문지른 듯 점막을 채운 루이 비통과 디올부터 아이홀까지 그림을 그라듯 기하학적인 아이라인을 선보인 발렌티노나 스텔라 매카트니의 룩까지 다채로운 디자인의 블랙 아이라인이 2020 F/W 런웨이를 장악했다. 셀린느나 막스 마라처럼 석탄을 문개 손으로 그린 듯 터프한 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부드러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따라 그린 뒤 면봉으로 가볍게 문질러 스머징을 하는 것이 좋다. 강렬한 눈매로 시선을 모으고 싶다면 모즈 룩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미우미우나 스텔라 매카트니의 아티스틱한 라인을 응용해도 좋을 듯.



헤라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79호 블랙, 2만 8천원.



빈티지 번트 룩

MLBB 컬러의 업그레이드 버전, 번트 컬러가 이번 시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MLBB보다 톤이 다운된 오렌지, 레드, 브라운과 와인 을 머금은 듯한 플럼 컬러 등으로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그만 이다. 석양이나 토양 등 자연에서 영감 받은 번트 룩의 컬러들은 자 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 유용하다. 톤이 다운된 오렌지 브 라운으로 볼과 입술 컬러를 통일한 내추럴 룩을 보여준 JW 앤더슨 과 마이클 코어스, 미쓰나나 아이새도로 활용하며 우아하면서도 빈 티지한 메이크업을 선보인 시몬 로사의 룩을 참고할 만하다. 펜디는 플럼 브라운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물들이듯 발랐고, 끌로에는 맑은 피부에 레드 브라운 컬러를 풀 립으로 발라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포 인트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54 마롱레드, 4만원. 가을을 대표하는 과실인 밤에서 영감 받은 레드 브라운 컬러의 밤 타입 립스틱.



세미메트 스킨

이번 시즌 베이스 메이크업은 보송하고 결점 없는 피부에 초점을 맞췄다. 단, 콧등이나 광대뼈 등 하이라이트를 줘야 할 부분은 광채를 살리는 것이 포인트. 피부 톤을 깨끗하게 정돈한 뒤 입술에 자연스러 운 혈색을 주고, 얼굴에서 빛이 가장 많이 닿는 콧등이나 광대뼈 등 하이라이트를 줘야 할 부분은 피부 속 광채를 살리는 자연스러운 음 영 메이크업을 시도한 이자벨 마랑이나 끌로에의 룩을 보면 알 수 있 다. 얼굴이 번들거리거나 거무튀튀해 보이는 다크닝이 우려된다면 밀착력 높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을 적극 활용할 것. 피 부 톤을 가볍게 정돈해주는 광채 베이스를 먼저 바른 뒤 파운데이션 을 스펀지로 두드리듯 얇게 바르고 브러시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펴 바르면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10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17N1호, 35ml, 6만원. 지워지거나 번들거림 없이 보송한 세미메트 피부를 유지해준다.



가을을 입다

살짝 그을린 듯 톤이 다운된 번트 컬러는 이번 시즌 가장 핫한 트렌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번트 컬러로 얼굴을 물들여볼 것.

photographer KIM YEONG JUN
editor CHOI HYANG JIN



BURNT SUNSET

저녁 하늘을 물들인 노을처럼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번트 선셋 메이크업. 번트 오렌지 컬러 블러셔를 광대뼈 위쪽과 눈두덩을 연결해 바르고, 입술에는 설화수 립세럼스틱 #43 번트선셋을 바른다.



SUBTLE PINK

핑크가 사랑스럽기만 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채도가 낮은 핑크 컬러를 선택해 뺨을 넓게 물들이고, 입술에 설화수 립세럼스틱 #38 서틀핑크를 바르면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룩이 완성된다.



TRUFFLE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매트 #480 트러플처럼 부드러운 브라운 뉘앙스가 더해진
MLBB 립스틱을 바르고, 같은 컬러의 블러셔를 콧잔등까지 연결해 바르면
부담스럽지 않은 번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MARRON RED

고풍스러운 건물의 벽돌을 연상시키는 번트 브릭은 몇 시즌째 사랑받고 있는 핫한 컬러. 선명하게 발색되는 컬러보다 실화수 립세럼스틱 #54
마롱레드처럼 시어하게 발색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번트 브릭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MODEL: CHOI MYEONG JIN, MAKEUP: JAMIE YOON, AUREUM CHO, LUCAS LEE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2020 안티에이징

이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뷰티풀 에이징을 위해 기억해야 할

2020년 안티에이징 트렌드를 모았다.

photographer KIM YOUNG JUN(인물), PARK JAE YONG(제품)
editor LEE SUNG JIN

레티놀이 돌아왔다

민음직한 성분으로 확실한 효과를 내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레티놀 화장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비타민 A의 하나인 레티놀은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했을 만큼 오랫동안 쓰인 성분이자 세계 의학 데이터 베이스에 유일하게 등록된 안티에이징 성분.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지만 성분을 안정화해 화장품에 함유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제품이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아이오페가 1997년 처음 레티놀 제품을 선보인 이후 꾸준히 연구와 개발을 거듭해온 것도 이 성분이 가진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2주 만에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과 치밀도를 높여주는 레티놀 엑스퍼트 시리즈가 그 노력의 산물. 가장 효과적인 함량을 찾고, 3단계 산소 차단 시스템을 고안해 탁월한 효과가 끝까지 지속되게 만들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1%
레티놀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 끝에 찾아낸 새로운 함량으로 만들어 다 쓸 때까지 일정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 레티놀 화장품들 처음 쓰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30ml, 9만원.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3%
2주 만에 확실한 주름 완화와 탄력, 치밀도 증진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 레티놀 제품을 써봤거나 레티놀 엑스퍼트 0.1%로 적응 기간을 거친 사람에게 알맞다. 20ml, 13만원.

설화수 명의초앰플
피로가 쌓인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끄럽고 윤택한 피부로 바꿔주는 8주 집중 관리 제품. 8ml×4, 20만원.



앰플 전성시대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싶어도 스킨케어 제품을 모두 관련 제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피부에 유효 성분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바로 앰플. 안티에이징 효능을 응축해 만든 스페셜 케어 제품은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보여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아직 더위의 잔재가 남은 요즘, 여름내 이어온 가벼운 스킨케어를 유지하며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헤라 시그니아 앰플

5백만 나르시스 식물 세포와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에 닿기 직전 활성화 되어 탁월한 생기와 탄력을 선사한다. 10.2g×4, 25만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차로부터 탄생한 AbsoluTea™와 EGCG 리뉴얼 파우더가 만나 결, 투명도, 탄력, 주름 등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7ml+0.6g)×4EA, 62만원.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펴밍세럼 야생 공에서 추출한 성분을 핵심으로 해 피부 밀도를 높이는 건 물론 팔자주름과 모공 주변 탄력까지 강화해 3중으로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에 착붙! 쫄쫄한 낫토 텍스처로 쫄쫄 매끈 피부로 가꿔준다. 50ml, 6만5천원.



프리메라 슈퍼 블랙씨드 콜드-드롭™ 세럼 진정은 기본이고, 잡티와 두드러진 모공 등 초기 노화의 징후를 고루 완화하는 저자극 포몰러의 세럼. 항산화 기능을 5배로 끌어올려 스트레스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50ml, 5만3천원.

자극 없이,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고 습한 데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여름의 여파로 민감할 대로 민감해진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진정에 초점을 둔 제품만 골라 쓰기에는 자극받은 피부가 주름이 지거나 처질까 봐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해 성분을 줄여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안티에이징 효과는 높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순하고 자극이 없으면 효과가 덜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 피부를 괴롭힐 수 있는 성분을 없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젊어지는 제품이 있으니 피부가 민감해도 걱정하지 말고 선택해보길

짜꿍템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다

제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맛이 없는 것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식품에 공함이 있듯, 화장품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짜꿍이 존재한다. 메마른 피부를 근본적으로 촉촉하고 팻긋하게 정돈해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와 촉촉한 피부

에 빠르게 스며들어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여주는 세럼이 좋은 예. 실제로 일명 '건강 탄력 듀오템'으로 꼽히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과 자음생에센스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미주 지역의 30~40대 여성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안티에이징 시너지 효과를 인정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헤라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배가시키는 퍼스트 에센스(150ml, 6만5천원)와 도시의 유해 요소에 자극받은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단 하루 만에 화사한 광채를 부여하는 세럼(40ml, 9만5천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 윤조에센스(120ml, 16만원)와 설화수 대표 탄력에센스 자음생에센스(50ml, 20만원). 두 제품은 함께 사용해 본 고객들의 만족도가 97%에 다다라서 '탄력시너지듀오'라고 불린다.





여성의 이너뷰티 밸런스를 맞추다

여성의 일생은 호르몬 주기에 따라 여러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월경전증후군(PMS)은 여성의 주요 건강고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여성의 건강 고민을 케어하기 위해 추천되는 원료로 감마리놀렌산을 들 수 있다. 바이탈뷰티 프림로즈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제품으로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원료로 아모레퍼시픽의 발아발효기술로 탄생한 대두발아발효추출분말과 참당귀, 작약, 감초 등의 식물추출분말, 세이지, 석류 등도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에도 도움을 주어 피부상태를 건강하게 가꾸어나갈 수 있다.

바이탈뷰티 프림로즈
감마리놀렌산 함유 식물성 캡슐제품으로 여성의 혈행과 피부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건강기능식품, 120캡슐, 5만원.

몸의 근본부터 다스리다

근본적인 신체 내부로부터의 건강 관리인 이너뷰티가 각광받는 시대. 많은 전문가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와 세포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비로소 생기 있고 건강한 활력이 아름다움으로 표출된다고 말한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면역과 혈행 증진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을 챙기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고 부원료로 인삼 일생에 단 한 번 열리는 인삼 열매를 고스란히 담은 홍삼 앰플이다. 간편한 앰플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면역과 활력 관리를 할 수 있다. **ib**

바이탈뷰티 명작수
홍삼과 함께 부원료로 인삼의 열매까지 고루 담은 프리미엄 홍삼 앰플. 건강기능식품, 50병, 26만원.



MODEL: PARK SEULKI, MAKEUP: JO A RUM, PALEK CHANG HOON(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인삼 에너지가 전하는 파워탄력

피부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매일 피부에 쌓이는 미세한 자극.

자음생에센스와 자음생크림 퍼펙팅은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 근본적인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전달한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진세노믹스™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완성하는 대표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20만원.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진세노믹스™와 8년근
황기 추출물이 피부
자생력을 키워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르는
탄력을 선사하고 노화의
흔적을 개선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5만원

자음생에센스
8주 사용 후 피부 치밀도 증가*

5.35%

자음생크림 퍼펙팅
피부 치밀도 증가**

3%

자음생크림 퍼펙팅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41%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 대상: 36~49세 여성.
시험 기간: 8주, 시험 항목: 사용
전·4주·8주,
시험 기관: (주)더마프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 대상: 44~56세 여성 31명,
시험 기간: 8주,
시험 기관: (주)엘리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자기 이미지 평가)
조사 대상: 42~56세 여성 32명,
조사 기간: 8주, 조사 기관: BNRI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 자음생크림 퍼펙팅

①

인삼에너지를 6천배 농축한 진세노믹스™

인삼 사포닌 중에서도 특히 피부노화를 완화시키는 진귀한 사포닌만을
골라 6,000배 이상* 농축한 활성 뷰티 사포닌 진세노믹스™. 설화수 자음생
라인의 핵심성분 진세노믹스™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 자생력을 키워,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한다.

②

설화수만의 탁월한 텍스처

자음생에센스는 농축된 영양감이 느껴지면서도 빠르게 흡수되며
놀랍도록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을 자랑한다. 자음생크림 퍼펙팅은
설화수만의 기술로 완성한 영양이 풍부한 텍스처로 차원이 다른
보습감과 윤기를 선사한다.

“바르자마자 코르셋을 입은 듯
탄탄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든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꾸준히 발랐더니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고,
설화수 고유의 향에
마음이 안정된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피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면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아모레퍼시픽의 베스트셀러,

타임 레스폰스 4세대 앰플로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을 시작할 것.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1

AbsoluTea™ + EGCG 리뉴얼 파우더

차로부터 탄생한 생명력의 정수 AbsoluTea™와 강력한 효능 성분을 안정화시킨 EGCG 리뉴얼 파우더가 사용 직전 혼합되어 결, 투명도, 탄력, 주름 등의 노화 고민들을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차원이 다른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경험하게 된다.

2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피부의 구조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효능으로 사용 4주 만에 피부의 시작(결, 투명도) - 연결고리(주름, 탄력) - 끝(치밀도, 유스앵글)까지 빈틈없는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3

4주, 4번의 결정적 선택

더욱 강력한 효과를 위하여 일주일에 1병씩, 총 4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용량으로 설계 되어있다. 앰플과 파우더를 사용하기 20분 전 미리 혼합해 두면 더욱 농밀해진 특유의 제형감을 즐길 수 있다.

피부의 시작

투명도 3.3% ▲
거칠기 10.8% ▼ (*1회 사용 직후)
각질량 44.8% ▼ (*1회 사용 직후)

피부의 연결고리

탄력: 뺨 1.5% ▲ / 입고리 1.5% ▲
주름: 이마 3.5% ▼
미간 3.7% ▼ / 눈가 3% ▼ / 팔자 6% ▼

피부의 끝

피부 치밀도 1.1% ▲
유스 앰글* 2.6% ▲

*51-65세 여성 31명 대상
4주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관: (주)다마프로
기간: 2019.9.2-11.1

*유스 앰글: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지표로 젊은 피부일수록
출출하고 선명한
결을 보임.

“스킨케어 그 이상의
감각적 경험까지 제공하는
뷰티 리추얼 제품.”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바른 다음 날부터 피부가
달라지고, 사용할수록
그 효능에 놀라게 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안티에이징 앰플의 최고봉.
비싼 값을 독특히
하는 제품이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AbsoluTea™와 EGCG 리뉴얼 파우더가 만나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4주 프로그램 고효능 앰플. (앰플 7ml + 파우더 0.6g) × 4EA, 62만원.

전설의 레티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의 레티놀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아이오페의 레티놀 세럼이

또 한번 진화했다. 10세대 레티놀, 레티놀 포링클 0.1%를 소개한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1%
고함량의 레티놀 성분이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30ml, 9만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팔자주름 감소*
26.1%
|
눈 밑 주름 감소
15.4%
|
모공 늘어짐 감소**
2.3%

* 시험 기간: 2019년 9월 16일~10월 17일.
시험 대상: 만 40~59세 성인 여성, N=40
시험 기관: 피앤케이 피부임상연구소(주)
** 모공 늘어짐은 0.3% 일시적에 한함.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1%

①

단 2주 만에 확실히 드러나는 주름 개선 효과

국내 특허출원 25건, 해외 특허출원 22건 및 대외 수상 여섯 차례 등 1994년 레티놀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아이오페의 레티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아이오페의 레티놀 10세대 버전은 사용 후 단 2주 만에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②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끝에 찾은 최적의 레티놀 함량

최고의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평가받지만 성분 안정화 기술 개발이 어려워 아이오페를 포함한 소수 브랜드만 제품화에 성공한 레티놀. 아이오페는 1997년 레티놀 제품 첫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레티놀 안정화 기술을 진보시켜 0.1%, 0.3%라는 획기적인 고품량 레티놀을 제품에 담았다. 레티놀 제품에 익숙지 않다면 0.1%를, 과거 레티놀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0.1% 사용 후 적응 기간을 거친 사람은 0.3%를 추천한다.

③

처음 효과를 끝까지 3단계 산소 차단 시스템

빛과 공기에 쉽게 산화하는 레티놀 성분을 온전히 피부에 전달하기 위해, 아이오페의 레티놀은 3단계 산소 차단 시스템을 갖춰 레티놀 효능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가장 큰 고민이던 눈 옆의 일명 까치발 주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사용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폭 꺼졌던 눈 밑이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세를

내 생애 최고의 쿠션

수많은 쿠션 파운데이션 중 내 피부에 꼭 맞는 완벽한 제품을 찾았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FOR 마르지 않는 수분

헤라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막 스킨에서 나온 듯 수분으로 꽉 찬 물광 피부를 원한다면 헤라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가 해법. 수분이 풍부해 촉촉하고 환한 광채가 도는 피부의 광학적 특성을 모사한 시크릿 컬러 파우더를 함유해 촉촉하면서도 화사하게 빛나는 광채를 연출해준다.

“피부가 건조할 때면 찾게 되는 쿠션 파운데이션. 잔주름과 비석한 각질까지 촉촉하고 매끈하게 커버할 수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헤라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15g×2, 5만원.

FOR 윤기 커버

헤라 UV 미스트 쿠션 커버

피부에 촘촘히 밀착해 작은 결점까지 완벽히 감춰주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찾는다면 헤라 UV 미스트 쿠션 커버가 최고의 선택. 투명한 반사판 파우더가 완벽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동시에 빛을 균일하게 반사해 어떤 각도에서도 입체적으로 빛나는 윤기를 표현할 수 있다.

“윤기는 잃지 않고 완벽하게 커버해 자꾸만 찾게 되는 쿠션.”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헤라 UV 미스트 쿠션 커버, 15g×2, 5만원.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가벼운데,
뛰어난 커버력이 오래 지속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설화수 퍼펙팅쿠션 SPF50+/PA+++
15g×2, 6만5천원

FOR 오래 지속되는 커버력
설화수 퍼펙팅쿠션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섬세한 커버와 윤기 흐르는 마무리감으로 전세계 여성을 사로잡은 쿠션 파운데이션. 무엇보다 정교하게 커버되고 특유의 윤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강점이다. 7초에 1개씩 판매되는 높은 판매율이 제품의 품질을 입증한다.



“영롱한 제품의 패키지처럼
화사한 빛이 도는 피부로 연출해준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설화수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50+/PA+++
14g×2, 6만8천원

FOR 화사한 피부

설화수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설화수만의 진주모 콤플렉스EX를 함유해 바르는 즉시 피부 톤을 화사하게 살리고 눈부신 진주빛 광채를 입혀주는 쿠션 파운데이션. 자정미백에센스의 효능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송감과 지속력을 갖춘 쿠션.”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헤라 블랙 쿠션 SPF34/PA+++, 15gX2, 5만5천원.

FOR 매끈한 세미매트 피부

헤라 블랙 쿠션

피지에 녹아내리지 않는 지속력과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누적 판매율 4백만 개의 대기록을 세운 쿠션 파운데이션. 국민 쿠션이란 수식에 걸맞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송한 세미매트 피부 연출에 탁월하다.



“영양 크림을 듬뿍 발라 고급스러운 윤기로 코팅한 듯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15gX2, 12만원.

FOR 스파에서 관리받은 듯한 윤기 피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아모레퍼시픽만의 특별한 워터 젤 트랩 기술로 안티에이징 세럼을 쿠션 파운데이션에 그대로 담아 영양이 풍부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실제 다이아몬드를 미세 입자로 분쇄한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함유해 고급스럽게 빛나는 광채를 구현한다.



아이라이너 하나면 돼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메이크업 트렌드는 아이라인. 그래픽부터 스모키까지,
아이라이너 하나로 다채로운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자.

LOOK 1. WINGED LINE

고양이 같은 눈매를 연출해주는 캐츠아이 라인. 이중에서도 날개를 단 듯 쪽 뺀은
윙드 아이라인이 이번 시즌 런웨이를 강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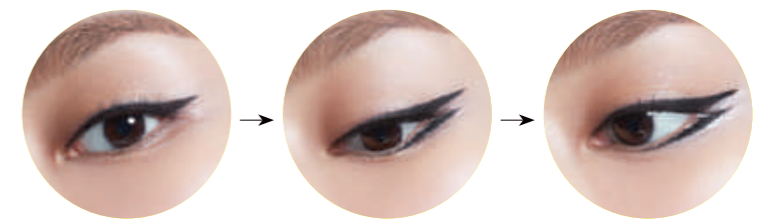
STEP 1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79호 블랙이나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79호 블랙으로 아랫눈썹 라인을 연장하듯 위를 향해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STEP 2** 눈을 뜰 때 라인이 보일 정도의 두께로 눈시울에 가이드 라인을 그리면서 눈꼬리 쪽에 삼각형으로 에지를 준다. **STEP 3** 가이드 라인 안쪽을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메우고, 젤이나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속눈썹 사이사이를 매우듯 라인을 그린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GRAPHIC LINE

아이라이너를 활용해 다양한 패턴을 그리는 그래픽 아이는 몇 시즌째 이어지는 트렌드.
캐츠아이 라인에 위트를 더하면 자연스러운 그래픽 아이라인 연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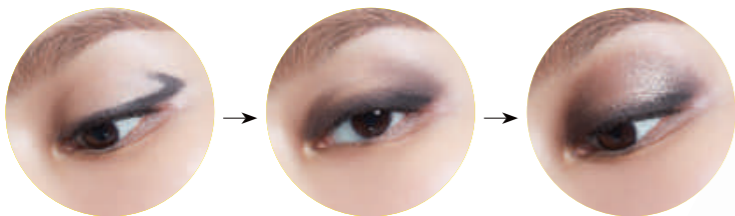
STEP 1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79호 블랙이나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79호 블랙을 이용해 눈매와 어울리는 길이로 캐츠아이 라인을 그린다. **STEP 2** 동공 아래부터 눈꼬리 쪽으로 아이라인을 그린다. 이때 위쪽 아이라인과 떨어뜨리는 것이 포인트. **STEP 3** 컨실러로 두 라인 사이와 라인의 끝을 정돈해 보다 선명하고 샤프한 라인으로 완성한다.

헤라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79호 블랙, 2만8천원. 팔을 포물러를 형성해 번지는 일 없이 선명하고 또렷한 아이라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이라인. 탄성 있는 소프트 타입이라 깔끔한 아이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다.



LOOK 3. DIRTY SMOKY

2010년대 초반을 강타했던 스모키 아이가 돌아왔다. 단, 매끈하게 그라데이션 하는 대신, 살짝 얼룩진 듯 러프하게 연출하는 것이 2020년형 스모키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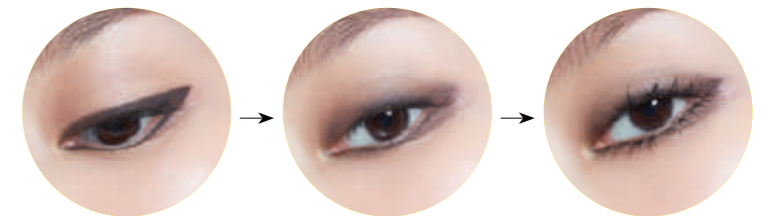


- STEP 1 헤라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블랙을 이용해 눈꼬리 끝부터 위쪽으로 라인을 그린 뒤, 아이홀을 따라 안쪽으로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눈머리도 눈꼬리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 STEP 2 아이새도 브러쉬나 팁을 이용해 가이드 라인을 눈두덩 안쪽으로 스머징 한다.
- STEP 3 가운데 빈 공간에 원하는 컬러의 색도를 발라 그라데이션 한다.



LOOK 4. SEMI SMOKY

눈매를 따라 뺨 두른 스모키 아이라인은 부담 없이 섹시하고 큰 눈을 연출하기에 그만. 여기에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강조하면 1960년대 레트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 STEP 1 헤라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블랙으로 속눈썹 라인을 따라 아이라인을 그린다. 이때 윗눈썹 라인은 도톰하게, 아랫눈썹 라인은 뒤틀스만 느껴지도록 얇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다.
- STEP 2 스머징 툴로 윗눈썹 라인을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한다.
- STEP 3 마스카라를 듬뿍 발라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한다.

PHOTOGRAPHER: CHOI SEUNG HYUK (제홍),
 MODEL: JAMIE, MAKEUP: JAMIE YOON, JANE PARK, JANE PARK, JIYOUNG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헤라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블랙, 2만5천원. 색감이 부드럽고 풍부한 펜슬 아이라이너. 바른 직후에는 블렌딩이 용이해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번지는 일 없이 오래 지속된다.

STEP 1

목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라

강한 햇볕을 장시간 집중적으로 쬐어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에 입자가 굵은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색소침착을 가속화할 뿐이다. 일단은 민감한 피부를 부드럽게 클렌징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세정하기 위해선 코코넛 오일이나 자작나무 등 보습 성분은 물론, 목은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은 단백질 분해 효과가 뛰어난 셀룰로오스 비드와 화이트 클레이 성분이 들어 있어 세안하면 노폐물과 피지가 제거돼 피부 톤이 한층 맑아진다. 클렌징 후에도 피부 표면이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아하(AHA)와 바하(BHA) 성분을 함유한 에센스로 피부를 한 번 더 정돈하는 것이 좋다.



프리메라 수딩 센서티브 젤 클렌저.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세정해주는 젤 타입 클렌저. 100ml, 1만5천원.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셀룰로오스 비드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목은 각질을 제거해준다. 200ml, 3만2천원.

여름의 흔적 지우기

애프터 바캉스 케어가 필요한 때, 목은 각질을 제거하는 클렌저부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애플,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나이트 크림까지 단계별 베스트 제품을 공개한다.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KOREA.COM, CHOI SEUNG HYUK(지훈)

STEP 2

비타민 C로 색소침착을 잡아라

자외선으로 생긴 잡티를 효과적으로 지우기 위해선 비타민 C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진피의 산화를 방지하고 점이나 기미, 검버섯 등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한다. 다만 순수한 비타민 C는 성질이 불안정해 안정화하기 까다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오페의 더비타민 C25 애플은 수년간의 연구로 순수 비타민 C 성분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헤라의 화이트 프로그램 캡슐 애플 역시 미백 특허성분 멜라솔브로 코팅하는 더블-코어셀 안정화 기술을 사용해 과립 형태의 캡슐형 파우더로 만들었다.



아이오페 더비타민 C25 피부의 노화 징후를 예방하고 활력과 광채를 선사하는 에센스. 17g, 7만원.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캡슐 애플. 비타민 60%가 든 세럼이 눈에 보이는 기미와 잡티를 완화해준다. 7.7g×6개입, 16만원.

STEP 3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피부 광채를 살려라



설화수 자정수 거친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으로 백화사설초 성분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개선한다. 125ml, 6만5천원.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멜라솔브™ 래디언스 세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주는 화이트닝 세럼. 40ml, 10만원.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가한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기 위해 멜라닌세포가 활성화되고 이는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본연의 광채가 도는 피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헤라가 독자적인 연구 끝에 개발한 성분인 멜라솔브2X™를 담은 오일 캡슐 세럼인 화이트 프로그램 멜라솔브™ 래디언스 세럼과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연에서 얻은 백화사설초 성분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은 자정수는 스마트한 화이트닝 제품이다.

STEP 4

화이트닝과 보습이 동시에 가능한 나이트 케어로 마무리하라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피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그러므로 화이트닝 케어와 동시에 수분 영양 케어를 해야 한다.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은 기본이고, 피부 장벽 강화와 보습에 탁월한 판테놀 성분을 더해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탄력을 강화하는 헤라의 화이트 프로그램 래디언스 크림, 피부의 항산화 기능을 끌어올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프리메라의 슈퍼 블랙씨드 콜드-드랍 크림 등 화이트닝과 수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멀티 크림으로 케어 할 것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래디언스 크림. 쫘득하고 묵직한 질감으로 다크스팟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피부 톤을 화사하게 개선하는 크림. 50ml, 9만원.
프리메라 슈퍼 블랙씨드 콜드-드랍 크림. 블랙 씨드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추출해 담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크림. 50ml, 5만8천원.

부기가 살 됩니다

언젠가는 빠지겠지만 부기를 방지하는 것은 금물. 정체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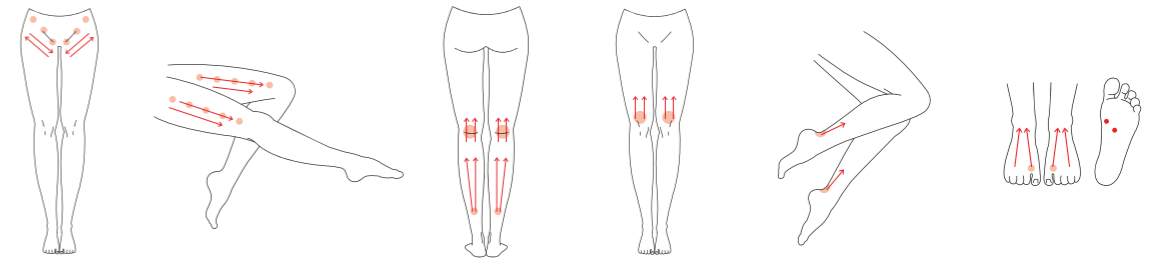
순환을 뚫어주지 않으면 부기가 살로 이어질 수 있어 부기를 빼는 마사지가 시급하다.

editor LEE SUNG JIN

여름내 가장 많이 한 말이 '나 오늘 조금 부었어'는 아닌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며 부기로 고민하는 사람이 꽤 많다. 부기가 살로 이어져 '확찐자'가 된 사례도 꽤 많을 터. 게다가 앞으로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면 부종은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부기는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며 생기는데, 이 수분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노폐물이 섞인 좋지 않은 물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기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 점막을 손상시켜 탄력을 떨어뜨리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지방세포와 결합해 셀룰라이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으므로 부기가 살이 된다는 말도 꽤 신빙성이 있다. 정체된 수분 때문에 체액과 혈액이 잘 들지 않으면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에 이상이 생겨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독소나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막힌 림프계나 모세혈관 등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가 시급하다. 몸이 잘 붓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으나 생활하며 계속 몸만 주무를 수는 없는 노릇. 황금 시간은 샤워 후 혈액순환이 원활해졌을 때. 단 5분의 투자로 부기를 빼고 몸을 가볍게 만들 마사지 노하우를 소개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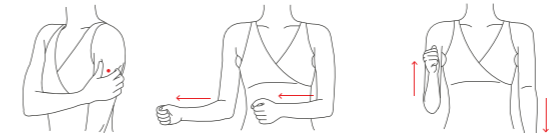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 PARK JAE YONG(제음), ILLUSTRATION: KIM YAE EUN



하체 마사지

- 1 허벅지 윗부분인 서혜부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른다. 이후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밀며 번갈아 마사지한다.
- 2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 3 무릎 안쪽인 오금을 둥글게 문지른 뒤 아래에서 위로 쓸 듯 마사지한다. 종아리도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한다.

- 4 무릎 윗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한다.
- 5 아킬레스건 주변을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한다.
- 6 발등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목까지 문지른다. 발바닥은 전체적으로 눌러주는데, 특히 각각 신장과 위를 관장하는 부분(표시한 곳)은 빼놓지 않는다.



팔 마사지

- 1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3등분한 상태에서 위에서 3분의 1 지점을 30초간 잡아당긴다.
- 2 작은 공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팔을 굽혀 좌우로 10회 움직인다.
- 3 ②와 같은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인다.



배 마사지

- 1 손끝으로 아랫배 부근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강하게 마사지한다. 주먹을 가볍게 짚 채 배로 복부 근육을 문지른다.
- 2 양손을 엇갈리게 해 복부 근육을 좌우로 비튼다. 위아래 손의 위치를 바꿔 한번 더 비튼다.
- 3 복부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아래에서 위로 각각 9회씩 끌어올린다.



얼굴과 목 마사지

- 1 쇄골에서 시작해 턱까지 양손으로 가볍게 쓸어 올린다.
- 2 쇄골 앞에서 시작해 목뒤까지 마사지한다.
- 3 양 손끝으로 쇄골 아랫부분을 쓰다듬고, 어깨선을 따라 가볍게 쓸어내린다.

TIP 마사지할 때 함께 쓰면 좋은 바디 크림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바디로션
 센슈얼한 플로럴 향기가 매력적인 바디로션.
 250ml, 5만원.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로션
 보습 효과가 뛰어난 망고 버터와 호호바씨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준다. 380ml, 3만2천원.



구달 파리 데뉴드 스와레 바디크림
 매력적인 이브닝드레스 차림에 어울릴 만한 관능적인 시프레 계열의 바디크림.
 175ml, 12만원.



MANNISH SUIT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시크한 향수

구말 파리 오드 무슈 오드 뚜왈렛, 100ml, 21만4천원.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어깨부터 허리까지 건축적인 라인을 이루는 테일러드 재킷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클래식한 코트 등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파워 슈트에 완전히 매료된 듯하다.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던 박시한 실루엣이나 아방가르드한 디테일을 내세운 슈트 대신 피티 위모(Pitti Uomo)에서 볼 법한 클래식 슈트가 런웨이 곳곳을 점령했으니 말이다. 이런 매니시한 룩과 어울리는 향은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젠더리스 퍼퓸. 구말 파리의 오드 무슈는 민트와 베르가모트, 만다린의 정량한 시트러스 향과 제라늄, 파출리, 샌들우드의 조합으로 은은한 잔향이 매력적이다.



HERMÈS

DIOR

BALENCIAGA

MICHAEL KORS

70'S MIDISKIRT:

여성스러운 플로럴 계열의 향수

구말 파리 에뚜왈 뉘 오드 퍼퓸, 50ml, 19만8천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의 미디스커트가 다양한 소재로 무장하고 다시 트렌드로 떠올랐다. 셔츠나 블라우스, 낙낙한 니트 스웨터와 짝을 이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 구찌나 에르메스, 이자벨 마랑부터 스커트에 슬릿을 더해 한 곳 차이를 시도한 디올과 끌로에, 체크무늬 케이프를 매치한 셀린느까지 1970년대 프렌치 부르주아의 진수를 보여주는 룩이 쏟아졌다. 아이리스, 로즈, 라즈베리와 파우더리한 향이 어우러져 매력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에뚜왈 뉘는 A라인 또는 H라인 스커트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여성미를 극대화해주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 스커트 끝자락에 살짝 뿌려 걸어 다닐 때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게 해도 매력적이다.



CELINE

HERMÈS

ISABEL MARANT

DIOR

패셔너블한 향수

스타일의 완성은 향. 2020년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향수 4가지를 매치해 오감을 자극하는

스타일링의 재미를 느껴보자.

editor AHN SAE ROM



MARC JACOBS

BOTTEGA VENETA

BOTTEGA VENETA

CELINE

SPARKLING GLAM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의 향수

헤라 지일 오드 퍼퓸, 40ml, 4만2천원.

여성을 자극하는 화려한 패션 판타지가 런웨이에 펼쳐졌다. 귀 밑까지 늘어진 구찌의 헤어피스, 반짝이는 크리스털 비즈로 뒤덮인 미우미우의 슬립 드레스와 1920년대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넬과 JW 앤더슨의 프린지 드레스, 몸을 타고 유려하게 흐르는 셀린느의 우아한 스팅글 이브닝드레스까지 극도의 화려함과 우아함으로 무장한 클래식 글램 룩이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화려한 스타일에는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자아내는 머스크 베이스 향수가 어울린다. 열정과 열의를 뜻하는 지일(z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파우더리한 머스크 베이스에 그린, 플로럴 계열의 향을 조합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삶을 표현한 헤라의 지일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귀 뒤와 손목에 소량을 바르면 은은한 잔향을 느낄 수 있다.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SEUNG HYUK(제홍)

MICHAEL KORS

CELINE

ISABEL MARANT

BOTTEGA VENETA

BIG FUR

따스한 느낌이 포근하게 감싸는 향수

프라도어 퍼스웨이드 바디 오드 퍼퓸 06, 50ml 기획, 4만9천원.

추운 겨울에 진가를 발휘하는 시어링 코트가 이번 시즌엔 한층 더 크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커다란 솔갈라가 달린 셀린느와 스텔라 매킨토니의 큼직한 모피 코트 등 한층 다양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인기를 구가한 테디베어 코트와 다른 점은 시어링의 질감을 좀 더 풍성하게 살렸다는 것. 코트를 걸치기 전, 포근한 모피의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바디 퍼퓸을 뿌려 따뜻한 기운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 불쾌한 체취는 없애고 향긋한 향을 남기는 바디 퍼퓸, 프라도어의 퍼스웨이드 바디 오드 퍼퓸 06은 부드러운 캐시미어와 재스민, 백합이 만나 살에 닿으면 은은한 파우더 향이 감돈다. 목부터 쇄골, 정강이에 가볍게 바르면 신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이 남는다.

#마스크자극프리
#피부진정템
#착한화장품

생생한 제품 평가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2종 세트를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후기.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AHN SAE ROM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2종 세트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150ml + 오가니언스
워터 3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30ml + 내추럴
리치 클렌징 폼 30ml).
6만원. 발아새싹의
에너지를 품은 내추럴
큐어 플렉스™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스킨과 에멀전. 지속
가능한 패키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Natural Cureplex™

Organience Water:

Germinated black beans protect from external stress, while ho and artemisia sprouts shield the external irritation to help the skin clear and fair. • **Key Ingredient** 1 Black Bean (*Glycine max*), 2 Houttu data (*Houttuynia cordata*), 3 A (*Artemisia vulgaris*)



Emulsion Organience

Natural Cureplex™

Organience Emulsion:

Germinated black beans and black rice provide moisture and rich nutrients to the skin to maintain the skin's ideal balance. • **Key Ingredients** 1 Black Bean (*Glycine max*), 2 Black Rice (*Oryza sativa*), 3 Houttuynia Cordata (*Houttuynia cordata*)



@eunryori

마스크 사용으로
예민해진 피부에는
순한 성분의 자극 없는
스킨케어 제품이 필수!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라인은 바르면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하고
피부가 땅기는 일 없이
편안해요.



@eileenkeem_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라인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
중이에요. 여름이라
습해서 끈적이는 것이
싫었는데 촉촉하면서도
가볍게 마무리되고
피부에 자극도 없어서
마음에 들어요.



@sun_you.a_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토너와 에멀전은 바르면
바로 흡수돼 피부가
촉촉해져요. 이세트는
토너와 에멀전 정품
이외에 폼 클렌저를
포함해 미니어처 3종도
포함돼 있어 구성이
마음에 들어요.



@yoooon_ha

중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쓰고 있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계절이나 피부 타입에
크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heevly_zzang

예민해진 피부를 순한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스킨과 에멀전으로
진정시켜줬어요. 발아
새싹 성분을 함유한
스킨은 두드리며
흡수시켜도 좋고,
화장솜에 적서 팩을 해도
좋습니다.



@pinkpink_dorothy

주말에 갑작스럽게 들은
벼루지 때문에 걱정했는데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스킨케어 덕분에 빠르게
회복 중! 발아 검은콩과
어성초, 썩 추출물을
함유한 워터를 화장솜에
떨어 팩처럼 사용했어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참
좋네요.



@jihaaaaxx

여름 스킨케어
제품으로 적극
추천하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진짜 빨리
돼 산뜻한 느낌이에요!
발아새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라 피부에
촉촉한 성분으로
즉각 생기와 수분감을
채워주는 느낌!



@good.sh.c

덥고 짜증 나고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스킨케어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산뜻하게 바르고
싶잖아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스킨케어
2종으로 데일리 케어를
하고 있어요. 순하고
촉촉한 성분으로
에센스를 따로 바를 필요
없고 피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vidid_beom

발아새싹 성분의 내추럴
큐어 플렉스™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기
좋아요. 5-프리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m_bbong_makeup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스킨케어 2종을 써봤는데
더위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환경에 성난 피부가
진정되면서 광채가
생겼어요. 원래 스킨케어
제품을 잘 안 바꾸는데
이건 며칠 사용해보니 아주
괜찮아서 계속 쓰려고요.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프리메라가 만들어
신뢰가 가네요.

채식을 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혹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랫동안 이어온

식습관을 바꾼 4명의 여성들. 식단 조절의 수위나 신념의 강도와 상관없이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과감히 채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notoursteam

신하나

3년째 비거니즘을 실천하며 비건 패션 브랜드 낮아워스를 론칭하고 식물성 소재로 만든 다양한 의류와 패션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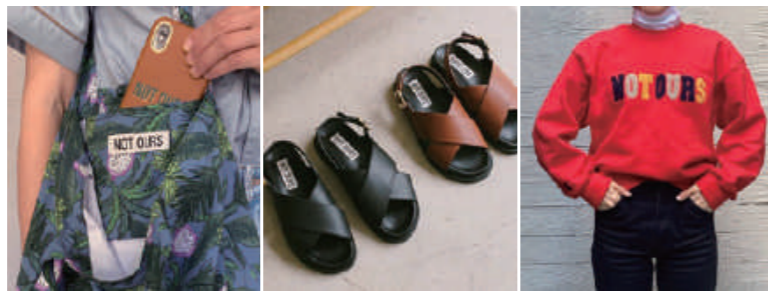
채식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직장에 다니던 시절, 어느 날 마장동에서 회식을 했어요. 소고기를 질리도록 먹었죠. 부른 배를 안고 식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머리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속이 거북하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당분간 고기를 좀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비건 활동가 게리 유로프스키의 강연을 듣고 난 뒤 비거니즘과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 되었어요.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비거니즘이 동물과 환경을 위한 실천 철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비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나요?

비거니즘을 실천하며 모피, 가죽, 실크, 캐시미어 등 동물성 소재를 쓰지 않고 만든 아우터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와 함께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인조 모피 코트를 제작해 텀블벅 펀딩을 진행했고, 이것이 낮아워스의 첫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비건 화장품에 비해 비건 패션 브랜드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비건 레더, 페이크 퍼 등의 소재로 옷을 만드는 브랜드가 늘어나는 것 같아 반가워요.

비거니즘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비거니즘은 좀 차별에 반대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최대한 배제하는 철학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비거니즘을 조금만 탐구해보면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당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종용하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개개인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당장 식습관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화장품이나 옷 등을 비거니즘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고, 하루 한 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건식으로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다 보면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photographer KIM Z WON
editor LEE SUNG JIN

@maison_de_vegan

이서영

운동 마니아이자 베이커. 몸에 좋은 빵을 찾다가 비건 베이킹을 접한 이후 비건 베이커리 매종 드 비건을 운영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중이다.

어떤 채식을 하시나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비건 베이킹을 접했고, 베이커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페스코-플렉시테리언을 지향해요. 평상시에는 육류를 먹지 않고 우유나 달걀, 해산물은 섭취하는 페스코 채식을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육류를 조금 섭취하기도 하는 방식으로요. 물론 매종 드 비건의 빵은 모두 100% 비건 레시피로 만듭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채식으로도 체력이나 근육이 유지되나요? 요즘은 채식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방법이 많아요. 유청을 제거한 비건 단백질 파우더도 있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병아리콩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원이거든요.

매종 드 비건의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운동하는 여자가 만드는 비건 빵'이에요. 전 단순히 빵을 판다기보다는 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여자가 먹는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빵 사진뿐 아니라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많이 올려요. 그 때문인지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운동하는 분입니다. 또 하나가 '편견을 없애는 맛있는 비건 빵'이에요. 우유, 버터, 달걀, 설탕, 두부 첨가물을 쓰지 않는 빵이다 보니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진 분이 꽤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버터가 맛을 가리지 않아 원재료의 맛이 풍성하게 느껴지거든요. 비건 깃털 스콘에서는 깃털 향이, 얼그레이 캐러멜 파운드케이크에서는 향긋한 얼그레이 향이 많이 나오. 손님들도 소위 '속세 빵'보다 더 맛있다고 하십니다. 먹기 좋고 먹고 나서 속도 편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vmilshop

김나연

2018년 비건으로 시작해 지금은 비건 펠스코를 실천하며, 비건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베지스폰과 순식물친환경 제품 소포몰 비밀샵을 운영하고 있다.



비건 라이프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 꽤 험난했고, 암도 쉽게 없어지지 않아 심신이 무척 괴로웠죠. 암 치료 중 친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 채식이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공장식 축산업이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게 됐어요. 그날로 채식을 시작했죠. 지금은 육류와 달걀,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은 먹는 비건 펠스코를 실천하고 있고요.

비건으로 살며 느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정신이 더 또렷하고 덜 피곤하며 몸이 가볍죠. 면역력이 좋아졌고,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병에 휘둘리며 제 삶에서 스스로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선택한 채식을 하며 적극적으로 몸과 정신을 돌보게 됐죠. 제가 제 몸의 주인이 되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비건 라이프를 즐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비건을 취미로 만들어보세요. 제 취미는 비건 플레이스를 탐방하는 것이랍니다. 비건 메이트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제 메이트는 동생인데, 시간 날 때마다 둘이 같이 나가 구경하거나 인터넷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주문해 나눠 먹는 등 노하우를 나누다 보니 훨씬 즐겁더라고요.


비밀샵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인가요? 비건 라이프를 시작하고 나니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비밀샵이에요. 국내외에서 식품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비건 제품을 찾아 소개하는데, 아무래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으니 음식이 잘 나가요. 채식 라면, 시리얼 바, 귀리유나 아몬드유 같은 거요. 육류 대체 식품도 인기가 좋은데, 특히 얼마 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한국식 콩고기라 꽤 반응이 좋아요. 우리 입맛에 잘 맞고 식감도 좋거든요. 우유가 들어 있지 않은 밀크티도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비건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완벽한 비건이 되기 위해 몰아 붙이거나 겁먹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비건 라이프를 즐기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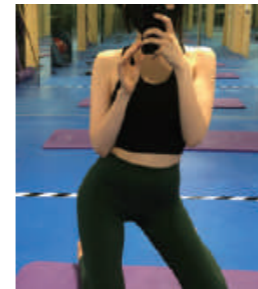


채식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전 사실 비건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느끼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물 대신 아이스 라테를 마시곤 했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만성피로가 느껴지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더라고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고, 생애 첫 건강검진을 통해 이를 눈으로 확인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30대를 맞게 될 것 같아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의 스물한 끼 중 일곱 끼까지는 폴로(가금류까지는 먹는 것)와 펠스코(해산물까지는 먹는 것)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건으로 살며 이전보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피부가 달라졌어요. 화장품 많이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서 광이 나고, 오랫동안 절 괴롭혀온 턱의 여드름도 사라졌거든요. 안색도 밝아져 주변 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결만 아니라 속도 좋아졌어요. 만성피로가 사라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져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체중이 2kg 정도 빠져서 그런지 몸이 늘 가벼워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신기하게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받쳐주니 요즘엔 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매일이 더 즐겁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요즘엔 비건 라이프가 한결 재밌어요.

비거니즘을 실천한다는 말에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평생 육식을 해온 터라 처음엔 힘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의지가 강한 편이라 힘들지 않게 적응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비건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유난 떠다고 할 것 같아 아직은 조심스럽거든요. 어쩌다 알게 된 분들은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같이 비건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저 덕분에 본인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함께 사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고요. 가까운 친구 한 명은 제 비건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미국 대체육류 회사의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비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관련 주식도 오를 거라더군요! 

HAIR: CHO SO HEE, MAKEUP: BAE HYE RANG, STYLING: LEE GYEONGWON



@legally_green

이소현

주 5일 채식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뷰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내 변호사.





고요하고 아티스틱한 숙소

국내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실한 요즘.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숙소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고요 속에 잠겨 보는 건 어떨까.

editor AHN SAE ROM



거제 지평집

거제도 안의 작은 섬 가조도 끝자락에 위치한 지평 집. 오롯이 푸른 산과 드넓은 바다만이 보이는 이 고요한 숙소는 이름 그대로 지평선 아래, 노을의 끝 자락처럼 땅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지평집을 디자인한 건축가 조병수는 땅의 등고를 따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 땅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콘크리트 건물 외관을 자연스럽게 식물이 자라나는 벽체처럼 설계해 자연과의 소통을 극대화했다. TV가 없는 8개의 객실은 외부와 달리 히노키 탕 등 나무 소재를 곳곳에 배치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평집은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게 쉼 공간을 찾는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되어준다.

주소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917
문의 www.jipyungzip.com



가평 기억의 사원

남이섬 근처 산속에 자리한 독특한 분위기의 숙소 기억의 사원은 건축가 민규암이 지은 건물로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 마치 깊은 숲속 산사에 있는 듯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은 각기 독특한 형태를 띤 독립 건물 12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던한 인테리어의 모든 객실에서 북한강과 그 뒤로 펼쳐지는 장락산맥을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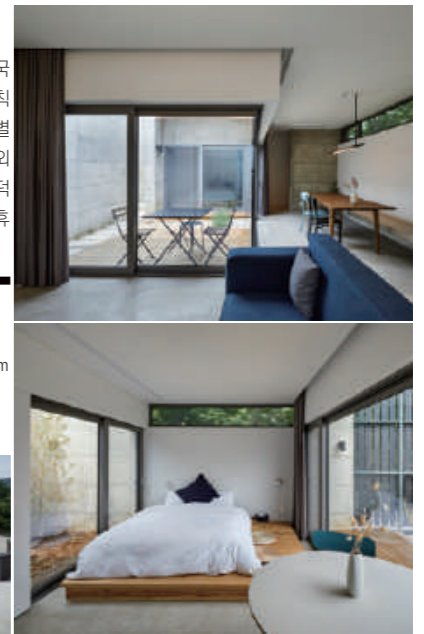
주소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832-89
문의 www.memorymaker.co.kr

무주 서림연가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무주 서림연가의 건물은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콘크리트 미로 같은 불규칙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콘크리트 입구를 지나면 눈이 시릴 만큼 푸른 정원이 펼쳐지고 정원을 따라 개별 객실로 향하는 길이 이어진다. 11개의 객실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공간마다 모두 중정과 마당이 있어 외부의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빗한 휴양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덕유산국립공원, 무주 덕유산 리조트, 덕유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인접해 있어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끼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원삼공2길 25
문의 www.seorimye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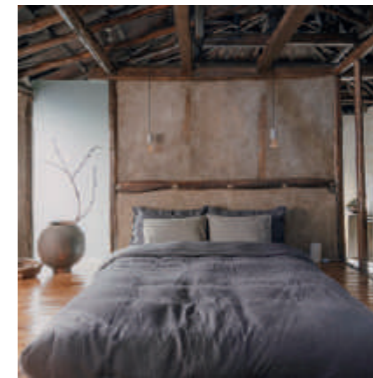


PHOTOGRAPHY: 고산별곡, 기억의 사원, 서림연가(노경), 지평집(SUNG LEE)

제주 고산별곡

1백여 년 된 현무암으로 지은 돌집을 복원하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로 완성한 숙소 고산별곡. 이곳의 건축을 맡은 어반플랫은 오래된 고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에 집중해 설계했다. 인도어 가든 풀이 있어 온실 정원처럼 꾸민 온수 풀에서 유유자적 힐링 타임을 누릴 수 있고, 넓은 바다를 옆에 두고 자연 풍광을 즐기며 산책을 즐기기도 더할 나위 없다.

주소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6-3
문의 0504-0904-2380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될 때까지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보이지 않는 여자들>

writer JUNG HYUN JOO

1975년 UN이 여성의 해를 선포하자 아이슬란드 여성 단체 대표들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다. '10월 24일 아이슬란드의 여성은 누구도 알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아이 돌봄까지 모두를 멈췄다. 여성들의 노동이 사라지면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되는지 남성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90퍼센트의 여성이 노동을 멈추고 광장에 모였다. 1년 뒤 아이슬란드에서는 성평등법이 통과됐다. 5년 뒤에는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쿼터제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회를 갖고 있으며, 최장기간 세계경제포럼 선정 세계 성 격차 지수 1위 국가다. <이코노미스트> 선정, 일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지만 아이슬란드 파업은 보여줬다. '일하지 않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존재할 뿐이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의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국의 여성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동등하지 않다. 부당하고 억울하다 같은 모호하거나 감정적인 문구 대신 수치를 제시한다. 오랜 기간 세상의 아주 많은 표준이 남성 위주로 결정됐다. 남성만이 보편이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이를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고 부른다. 공백을 채우자 다른 면이 보였다. 대단히 명백하게 말이다.

이 책에 따르면 '표준 사무실 온도를 결정하는 공식은 1960년대에 40세 70킬로그램 남성의 기초

대사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은 배제되었다. 평균 기초대사 차이를 고려하면 여성에게 적절한 실내 온도보다 무려 5°C가 낮다. 한여름에도 여성들이 긴소매 옷이나 스카프를 챙겨 출근하는 이유는 그들이 유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무실 환경 탓이다. 도시계획부터 자동차 디자인, 심지어는 피아노 건반 크기까지도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다. 데이터에서 배제됨으로써 여성은 표준 인류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다.

여름의 실내 냉방 온도가 성차별적이라면 겨울철 제설 작업도 문제였다. 2011년 스웨덴의 도시 칼스코가 공무원들에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시의 정책을 성평등 지침에 따라 다시 평가할 것.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부 다시 볼 것. 공무원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다. "적어도 하나는 젠더 감시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제설 작업." 이 덕분에 젠더 감시단은 질문해볼게 됐다. 제설 작업은 과연 성평등에 부합하는가.

숫자로 펼쳐진 눈발 위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기울어 있었다. 보통 제설 작업은 차도에서 시작한다. 인도는 다음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순서가 남녀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고야 알았다. 상상조차 못 했던 차이가 발생한다.

국적을 막론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3분의 2가 여성이다. 시카고에서도 62퍼센트가 여

성이다. 남성들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차가 한 대뿐인 경우 남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갈 때는 도보로 이동한다. 여성이 더 많다.

이동 패턴 역시 다르다. 여성은 보다 복잡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출근길에 여성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확률이 2배 더 높다. 퇴근길에는 장을 보러 간다. 근거리 도보 이동 역시 여성이 더 많다. 특히 전 세계 돌봄 노동의 75퍼센트를 여성이 차지한다. 아이나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우 역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장을 보고 난 뒤에는 짐을 들고 있다. 아이의 짐이나 노인의 짐을 대신 듣기도 한다. 차도에는 남성이, 보도에는 여성이 많은데, 심지어 짐을 든 여성이 많은데 차도의 눈을 먼저 치운다. 제설 순서는 과연 성 중립적인가. 눈 쌓인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유모차 혹은 휠체어를 미는 것,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칼스코가시 공무원들은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보행자가 외상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끄러운 보도에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칠 확률은 운전자의 3배다. 겨울에 홀로 길을 걷다가 다친 사람의 69퍼센트가 여성이다. 부상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했다. 보행자 사고 처리 비용이 겨울철 도로 관리 비용의 2배였다. 통계자료 수집 후 제설 순서가 바뀌었다. 뭉가 달라졌을까.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래, 우리는 눈이 오면 차도를 먼저 치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캐럴라인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크리아도 페레스는 말한다. '일부러 여자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여자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통계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젠더 데이터 공백은 전 지구적이며 생활 전반 구석구석에 걸쳐 있다. 영국의 경우, 위생공사 기준에 따르면 건물 내 화장실 공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5:5여야 한다. 이는 과연 성평등에 부합하는가?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남성의 2.3배다. 아이나 장애인, 노인을 동반한 여성은 더 늘어난다. 여성들이 평생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서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또 안전은 어떨까. 전 세계 여성들이 용변을 보기에 안전한 곳을 찾느라 보내는 시간은 1년에 9백70억 시간이다.

질문이 끝도 없다. 왜 놀이터에는 남자아이들이 더 많을까. 공공건물 계단 높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자동차는?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르 코르뷔지에가 건축설계 시에 사용한 표준 인간 모형은 1백83센티미터의 남성이었다. 불편했다면 우리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묻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는 지나갔다. 집계되지 않아 분명 거기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통계 자료 안에서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던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쓰고, 더 크게 말하고, 더 분명하게 쓰며 여성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늘어날수록 여성의 존재가 명백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가 명백했던 여성,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 평생 여성과 소외된 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에 관해 말했다. "저는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우라는 것뿐입니다." 한편 여성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외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말하고, 더 분명히 말하고. 함께, 더 함께.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하나하나 뚜렷이 보이는 존재가 될 때까지. **LD**

<향장>은 매달 <불륨을 높여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담당했던 작가이자 독립 서점 '리소본'을 운영하는 정현주의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ITEM 이달의 추천 제품

1

아모레퍼시픽 유스 레볼루션 래디언스 컨센트레이터
젊은 피부의 활력과 빛을 선사해주는 컨센트레이터.
30ml, 25만원.



2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43
번트 선셋 시즌 트렌드인 번트 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다.
3g, 4만원.

3

설화수 자정수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으로 거친 피부를 정돈하고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개선한다.
125ml, 6만5천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브랜드별 뷰티 신제품.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6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진세노믹스™와 8년근 황기 추출물이 피부 재생력을 키워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르는 탄력을 선사하고 노화의 흔적을 개선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5만원.

5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캡슐 앰플 비타민 60%가 특히 미백성분 멜라닌으로 코팅되어 들어있는 세럼이 눈에 보이는 기미와 잡티를 완화해준다.
7.7g×6개입, 16만원.



44 N°623
56 N°623

4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먼트 워터 산뜻하게 흡수되며 수분감과 영양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남성 피부를 위한 스킨. 180ml, 3만원(에멀전과 세트 구매시 6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남성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번들거림 없는 영양 로션. 150ml, 3만원(워터와 세트 구매시 6만원).

Drop the seed
Drop the age

순도높게 내려담은 흑미의 향산화로 노화걱정까지 내리다



슈퍼 블랙 씨드 콜드-드랍™ 세럼

primera

#5배 강력한 항산화력
#저자극 얼리 안티에이징
#10 FREE 클린 포뮬라

*인체적용시험 결과
나이아시나코르티아/여성 30명/한병(8주)사용 후

What It Is: An early anti-aging serum with rich anti-oxidant ingredients extracted from black seeds helps delay signs of aging. Key Ingredients 1 Black Seed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Sulwhasoo